



주제: 49. 마리아의 선택은?

달달말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30-31)

이야기 성경

* QR코드를 스캔
하여 말씀채트를
만나보세요~!



말씀 배우기

1.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2. 마리아가 순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을 읽고 빈칸을 채워봅시다.
(나는 주님의 □□입니다.
하나님의 □□대로 내게 □□□□□□.)
3. 내가 마리아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

성경이 궁금해요~!

성경이야기

갈릴리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 이곳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하신단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매우 놀란 마리아가 말했어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걸요?”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할 경우 큰 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리아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제자를 찾고 계세요. 걱정, 고민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메시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나타나,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로 영원히 나라를 다스리기를 바랐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였고, 마리아도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눠 봐요

- *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경우 무엇을 선택해 왔는지 생각해 봅시다.
- *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